

천하제일경 향일암 일출... 임포의 밤바다는 더 아름답다



향일암 마을 인 임포마을은 금오산에 안겨 다도해를 조망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여수 관광명소로 꼽힌다.

여수의 상징 '향일암 마을' 푸르른 금오산·돌산바다·붉은 해 한쪽의 그림
둘레길 조명 설치·동백숲에 벤치 만들고 바닷길 단장해 머무는 관광지로

여수는 어느 순간 '밤바다'의 도시가 됐다. 화려한 조명에 물든 여수의 밤바다는 낭만의 상징이 되어 사람들을 발길을 잡는다. 하지만 그 이전에 여수에는 사람들이 부르던 아침 바다가 있었다. 아침 햇살이 붉게 부서지던 여수의 바다. 사람들은 아침 바다를 보기 위해 사시사철 향일암이 있는 여수로 달려오곤 했다.

여수의 상징이었던 향일암을 품고 있는 임포마을, '향일암 마을'이 또 다른 봄날을 기다리고 있다. 같은 여수 바다지만 임포마을의 바다 풍경은 다르다.

도심에서 보는 바다에는 흥겨움과 낭만이 어우러져 있다면, 향일암을 끼고 있는 이곳의 바다에는 깊은 울림이 있다. 반짝이는 드넓은 다도해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금오산을 휘어 감은 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가면 잔잔하게 마음에 파도가 일어난다.

같은 여수지만 전혀 다른 곳에 온 듯한 느낌이다.

부지런한 이들에게는 천하제일의 일출도 보여준다. 새해가 되면 전국에서 가장 분주한 곳 중 하나가 향일암(向日庵)이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특별한 일출을 보기 위한 사람들이 새해 아침 부지런히 향일암에 오른다.

돌산도의 끝자락 금오산의 기암괴석 절벽에 자리한 향일암은 우리나라 4대 관음기도 도량이다. 간절할 마음을 담아 소원을 빌면 하나는 이뤄준다는 곳. 이곳에서 새롭게 떠오른 해를 맞이하는데 한 해가

어찌 특별하지 않을까?

신라의 원효대사가 선덕여왕 때 원통암(圓通庵)이란 이름으로 창건한 암자는 고려 시대에는 금오암(金鰲庵)으로 불리었다. 그리고 조선 숙종41년(1715년) 남해안의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는 해돋이 광경의 아름다움을 담아 인목대사가 향일암이라 명명했다.

천하제일의 풍경을 쉽게 접할 수는 없다. 주차장을 지나 가파른 돌계단을 한참 걸어 올라가야 한다. 바다와 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에 빠져 부지런히 걸음을 하다가, 숨이 차오를 때쯤 거대한 석문(石門)을 만날 수 있다. 잠시 숨을 고른 이들은 남녘노소, 직업을 떠나 거대한 자연 앞에서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린다. 몸을 낮추고 석문을 통과해야 부처님께 이를 수 있는 길, 사람들은 겸손하게 번뇌를 내려놓는다.

석문을 지나 다시 돌계단을 오르며 뒤로는 금오산, 앞으로는 돌산 바다가 안긴다. 푸른 산과 바다 그리고 붉은 해가 한 폭의 그림이 된다.

향일암은 2009년 화마에 휩싸이면서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지만 추억을 더듬어 화재 후 모습을 보기 위해 걸음을 한 이들이 많았다.

임포마을의 일출도 특별하지만 달이 떠 있는 이곳의 밤바다도 아름답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천천히 여운 가득한 밤바다를 만나고 싶은 이들에게는 임포마을이 더없이 좋다.

이곳은 동백꽃도 특별하다. 동백꽃 하면 오동도가 먼저 떠오르지만 돌산도도 동백

꽃 명소다. 남쪽 끝자락의 임포마을에는 동백나무가 가득하다. 향일암으로 가는 산비탈에도 동백숲이 펼쳐져 있다. 태양의 정기를 고스란히 받은 동백꽃은 때가 되면 붉고 탐스러운 자태를 뽐내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부지런한 걸음으로 향일암을 다녀와서는 맛깔나는 여수를 만나야 한다. 어획량이 부족 줄어서 고민이지만 삼치, 병어가 이곳 바다에서 파닥거린다. 돌산 갯김치는 설명이 필요 없다. 톱 쏘는 갯김치와 시원함이 더해진 물갯김치는 조림에도 회에도 어떤 음식에도 잘 어울린다.

갯김치 맛을 보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 집까지 직접 들고 가지 않아도 된다. 요즘은 택배로 편하게 갯김치를 사서 보낸다. 마을 주민들도 먼 길을 온 이들을 그냥 보내지 않는다. 넉넉한 인심을 담아 한 움큼 더 짝짝 눌러 담아 아무지개 포장을 한다.

2012년 엑스포가 열리면서 여수는 빠르게 변했다.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여수 밤바다'도 변화의 바람을 거세게 했다. 여수 해상 케이블, 낭만 포차 등 여수는 화려한 관광지가 됐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은 향일암에 이르지 않았다. 예전 모습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해돋이의 명소다. 한편으로는 멈춰버린 시간이 이곳 주민들에게는 큰 고민이다.

여수 관광지의 중심이었던 향일암은 스쳐 가는 관광지가 되고 말았다. 주말에는 특히 더 그렇다. 일찍 향일암을 다녀간 이들은 화려한 불빛과 행사가 있는 시내로

속속 빠져나간다.

76세대 150명. 고령화로 어업 인구도 많이 줄면서 관광업이 주가 된 만큼 달라진 관광 지도가 임포마을의 고민이다.

김경식(58) 임포마을 어촌계장은 "예전 보다 차량이 많이 들어오지만 식당, 숙박업에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농사 이런 곳이 아니다. 고령화로 어업도 예전 같지 않다"며 "밤에도 머물 수 있는 마을이 되어야 한다. 당장 시급한 것은 야간 테마다. 연인들, 가족들이 산책도 하고 즐길 수 있는 둘레길에 조명, 음악 등이 있어야 한다. 동백나무 숲도 정말 좋다. 동백나무 사이로 벤치도 만들고, 바닷길도 만드는 등 특색 있는, 오래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변모해야 한다"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돌산도 끝자락 금오산의 기암괴석 절벽에 자리한 우리나라 4대 관음기도 도량 향일암. 일출로 유명한 이곳은 2009년 화재로 소실됐다가 2012년 복원됐다.

찾아오는 길

- ▶ 승용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서해경부고속도로 → 천안논산고속도로 → 순천완주고속도로 → 엑스포대로 → 거북선대교 → 돌산읍 → 임포마을(향일암)
- ▶ 열차
KTX용산역 → 여수엑스포역(2시간40분) → 여수엑스포역-L정류장까지 도보이동(2분) → 111버스 승차(1시간6분 이동) → 임포(향일암)정류장 하차
-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 → 여수종합버스터미널(4시간15분) → 시외버스터미
- ▶ 버스
널정류장(도보 3분) → 111버스 승차(1시간9분 이동) → 임포(향일암)정류장 하차

“향일암과 어울리는 테마 바다 정비 나서 대대로 이어온 관광 명소 명맥 유지해야”

김경식 어촌계장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개발로 관광 명소의 명맥을 유지해야 합니다.”

김경식(58) 어촌계장은 '향일암 마을'인 임포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향일암을 중심으로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했던 임포마을은 달라진 여수 풍경 속에 고민 많은 마을이 됐다. 엑스포를 전후로 관광 중심이 도심으로 이동하면서 관광업이 중심이 되는 마을이 어려워졌다.

빠르게 변하는 도심과 달리 정체인 마을은 김 계장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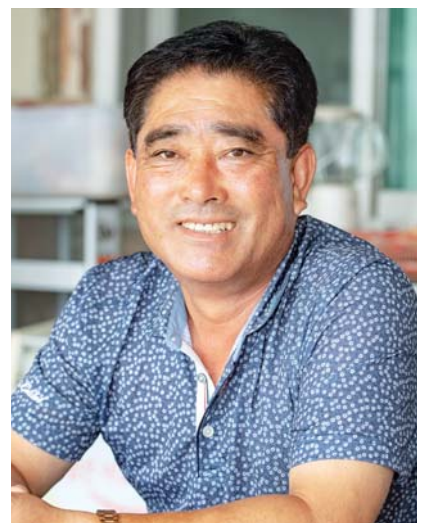
김 계장은 “우리 마을에 숙박업체가 10여 개 있는데 주말에 오히려 장사가 안 된다. 주말에는 시내권에서 행사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다”며 “도심 중심이 되면서 스쳐 가는 관광지가 됐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의 호주머니도 쉽게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열악한 어업 환경은 고민을 더 한다.

김 계장은 “고령화로 어업이 예전 같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을 많이 한다. 어획량도 예전 같지 않다. 어구로 잡은 고기와 미역을 직접 팔려서 노점을 하는 주민도 있는데 양이 많이 줄었다. 또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하시기 때문에 판매도 잘 안 된다”고 언급했다.

결국 관광업의 재부흥이 이곳 마을의 숙제다. 지역 관광 명소의 명맥을 이어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다.

김 계장은 “여수시에서 용역을 받아서 둘레길을 구상하고 있다. 스카이 워크 길



은 걸 설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사람들이 머물러야 하는데 밤에 향일암에 올라가도 조명이 없다. 밤에 망망대해를 볼 수도 없으니까 주로 아침에 올라간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향일암과 어울릴 수 있는 테마, 바다 정비 사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발이 훼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 계장은 “자연을 훼손하면서 개발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시에서 난개발도 우려하는 데 좋은 자연경관을 놔두고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것이다. 관광객이 더 편하게 보고 갈 수 있어야 한다. 또 노후화된 집, 건물들을 개보수해야 관광객들에게 좋은 숙박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내가 이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지내게 될지 모르지만 대대로 중요한 관광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관광지를 보전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의 건강한 만남과 상호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전남남도 지정 기관인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가 건강하게 만나 상호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특산물 직거래를 통해 도시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에 귀어·귀촌하는 도시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질 높은 특산물을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 만든 상품을 도시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도시민 누구나 전남 어촌을 찾아 맛있는 먹을거리를 즐기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구경할 수 있도록 관광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그 외에도 1사1촌 협약 등 전남 어촌과 기업 음식점 등과의 상호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062-220-0583-0514)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 임 광 희

청정해역·풍부한 어족... 젊은이들 귀어 행렬

남서해 최남단 국립공원 인접
전복·굴·김·미역 등 다양
양식하기 좋은 환경 갖춰
지난해 물김 927t 85억 생산
진도에서 소득 많은 마을

2010년 최우수 어촌체험마을
개막이 체험·해상펜션낚시
해상관광·웰빙등산 등
외지인 발길 끊이질 않아
운림산방 등 주변 볼거리도



진도군 의신면 접도마을은 주변 경관이 뛰어나고 양식을 하기에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춘 곳이다.

가을에 들어선 이즈음, 바다는 소리마저도 시원하다. 파도 소리에서 푸른 청량감이 묻어난다. 바다는 늦여름과 초가을의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 펼쳐져 있다. 사시사철 어느 때고 바다를 찾아가는 일은 설레지만, 이맘때의 바다가 주는 즐거움에 비할 바 아니다. 또 한 계절을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받아들이는 바다는 다함없이 푸르다.

물론 삶의 현장인 어촌의 바다는 그 곁이 다르다. 신열처럼 뜨거웠던 지난여름, 바다는 온몸으로 폭염을 받아내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받아들임'이 숙명인 바다가 피약발을 무시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숙연한 몸부림이 었을 것이다.

진도 의신면에는 접도라는 어촌 마을이 있다. 지명치고는 생소한 이름이어서 필경 내력과 관련된 곡절이 있지 않을까, 의문이 들었다.

'의신(義新)과 '접도(接島)라는 지명에서 추정해보면 역사적 유래가 깃들여 있을 터다. 예상했던 대로 '의신(義新)은 남달리의료음에 앞장섰던 고장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고려 말 몽고에 대항하다 진도로 내려온 삼별초의 의로움과 무관치 않다.

그렇다면 의로운 땅 의신면에 속한 '접도(接島)라는 지명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말 그대로 인접한 섬이라는 뜻인데, 이곳은 원래 외파로 떨어진 섬이었다. 접도는 삼국시대에 4개 마을이 형성됐지만 현재는 3개의 마을이 있다. 1988년 금갑마을과 연륙이 돼 차로 오갈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오늘날의 접도는 예전의 모습과는 다르다. 말 그대로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외지인들이 무시로 찾아오고, 수산물 수확량도 늘고 있어 활기가 넘친다. 무언가에 부속돼 있다는 예전의 이미지보다는 주도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다는 인상이 묻어난다.

아침나절부터 접도에 가기 위해 부산히 움직였다. 광주에서 접도까지는 넉넉잡고 2시간 30분. 거리상으로 그리 가깝지는 않지만 초가을이 주는 선선한 기운에 이끌려 부지런히 남행을 했다. 목포에서 해남에 들어서자 제법 노랗게 물든 들녘이 보인다. 다행히 태풍 피해가 많지 않아 들녘은 평온한 기운과 결실을 코앞에 둔 기대가

넘실거린다.

우수영에 당도하자 때마다 명랑축제가 열려 사방이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다. 진도대교 아래로 빠르게 흘러가는 물살이 가을햇살을 받아 반짝인다. 400년이 넘는 시간을 넘어 이순신의 충혼을 되새기고자 하는 이들의 발길이 모여 인근은 장관을 이룬다.

그리고 얼마 후 당도한 의신면 접도. 이곳은 남서해 최남단 국립해양공원 인접한 곳으로 오염되지 않는 청정해역과 아늑한 포구를 거느리고 있다. 특히 먹이사슬이 풍부해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며 전복, 굴, 김, 미역 등이 많이 난다. 지난 2010년 우수 어촌체험마을 선정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서 보듯 입지적 조건, 주변 경관, 양식장 등 환경이 좋다.

"우리 접도마을에서는 물김이 많이 납니다. 지난해 927t을 생산했는데 위판액으로 치면 85억 정도에 이릅니다."

어촌계 일을 보고 있는 한해성(61) 사무장의 설명이다. 한 사무장은 "작년 접도가 속한 수품항 물김 위판액이 1000억 정도에 이른다"며 "바다가 오염이 안 돼 김벌하기가 좋다"고 말했다.

이곳은 서남해안 끝이라 날씨가 좋은 날은 멀리 제주도도 보인다 한다. 물이 깨끗한데 해수온도가 적당한 것도 양식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다른 지역은 물김 생산을 대부분 3~4개월이면 끝나지만 이곳에서는 5~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찾아오시는 길

▶ 승용차

한남IC → 경부고속도로 → 논산천안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 서영암IC → 호동교차로(회원 방면) → 녹진교차로(진도타워 방면) → 진도군 → 의신면 → 접도마을

▶ 열차

KTX용산역 → 목포역(2시간15분) → 목포역정류장 200, 1A, 1-2버스 승차(13분 이동) → 버스터미널정류장 하차 → 목포종합버스터미널 도보이

동(6분) → 진도공용터미널(1시간10분) → 진도공용터미널정류장 도보이동(1분) → 금갑, 접도행 버스 승차(40분 이동) → 황모리정류장 하차 → 접도마을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 → 진도공용터미널(4시간40분) → 진도공용터미널정류장 도보이동(1분) → 금갑, 접도행 버스 승차(40분 이동) → 황모리정류장 하차 → 접도마을

물김 생산이 5월 초까지 가능해 어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 하는 것이다.

임정남(68) 이장은 "접도가 진도에서는 소득이 많은 마을에 속할 정도로 어장이 좋다"며 "수산물 뿐 아니라 인근에 웰빙 산책 코스도 있어 휴일이면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현재 접도마을에는 30여 가구가 있으며 모두 65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물김과 굴을 주 업종으로 하는 어가가 대부분이다. 주민들의 평균 나이가 60대 이상이지만, 젊은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비해 활기가 넘친다고 한다.

이곳에는 다양한 체험 관련 시설이 들어

서 있다. 개막이 체험과 해상펜션낚시를 할 수 있으며 해상관광과 웰빙등산도 가능하다. 다가오는 미래가 더 밝은 것은 이색적인 휴양, 체험, 전혜의 환경, 풍부한 수산물뿐 아니라 주변의 볼거리도 풍성하기 때문이다.

'모세의 기적'으로 유명한 신비의 바다가 펼쳐지는 회동마을이 멀지 않고 남도와 맥의 절정인 남종화의 감성이 깃든 운림산방도 지척이다. 그뿐인가. 산별초의 대풍향제의 흔이 서린 용장산성, 남도 전통문화의 보고 남도국악원도 가깝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접도 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는데... 지자체,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임정남 이장

"우리 마을은 청정해역인데다 인근의 산세도 좋습니다. 양질의 수산물을 생산할 뿐 아니라 외지인들의 방문도 많아 늘 활기가 듭니다."

임정남(68) 접도마을 이장에게선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자연적인 조건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바다에서까지 양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곳에서 나고 자라 바닷물을 하고 있는 그는 바다를 토대로 삶을 일구어 나가는 지금의 삶에 후회하지 않는다. "접도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다"는 말에서 바다가 주는 풍요와 여유로움을 짐작할 수 있다.

임 이장은 이곳에서 굴 양식을 한다. 7줄의 양식을 하는데 1줄에 100m씩 잡아도 대략 700m 정도 된다.

"우리 마을 굴은 육질이 단단해서 씹는 맛이 좋습니다. 작지만 무르지 않기 때문에 식감을 느낄 수 있지요. 또한 김장을 할 때 젓갈과 버무려 넣으면 시원하고 담백한 풍미를 맛볼 수 있죠."

그는 굴 뿐만 아니라 물김도 어느 지역과 다르게 품질이 우수하다고 덧붙인다. 마을의 주력 수산물은 물김과 굴이지만, 그는 고기도 잡고 있다. 바다에 망을 설치하고 고기를 잡는 이른바 각망 어업이다.

임 이장은 "물때에 따라 고기가 다른데 돔(뽕), 민어(여름), 농어(가을·겨울)가 주로 잡힌다"며 "활어차를 불러 판매를 하기 때문에 고기가 싱싱하다"고 덧붙인다.

어가 소득이 높아지면서 젊은이들도 점차 귀어를 하는 추세다.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아직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편이다. 내국인은 인건비도 비싸고 어려운 일은 안하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향후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의 희망인 바다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또 하나, 그는 마을의 중점 과제인 홍보 문제도 군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진도 관내 가운데 소득도 높고 웰빙 등산 코스도 있어 여러 모로 좋은 환경을 갖췄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을 찾는 외지인들을 위해 안내 홍보판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진행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바다에 펼쳐진 물김 양식장과 굴 양식장 모습.

인심 넉넉한 돌산갓 본산지서 휴식과 여유를 맛보다



전남 여수 두문포 마을 전경. 두문포 마을은 비룡 2마리가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번잡하고 시끌벅적한 관광지라 달리 아담한 포구와 한적한 바다가 여유를 주는 마을이다.

비룡 2마리 포근하게 감싸 안은 순박한 포구마을 낙시대 드리우면 어디든지 포인트...어족도 풍성 간조때 길 열린 돌섬...비렁위 갯가길은 걷기 명소

일상의 소란을 피해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을 때가 있다.

전남 여수 '두문포 마을'은 휘황찬 없이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다. 번잡하고 시끌벅적한 관광지와는 다르다. 아담한 포구, 한적한 바다는 사물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볼 수 있게 만든다. 쪽빛바다와 그럴싸한 해변이 없어도 나름 매력적이다.

국내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여수 도심에서도 1시간은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두문포 마을은 마을 전체가 비룡 2마리가 감싸고 있는 형상이라고 한다. 임진왜란 때 남해에서 왜군이 쳐들어 왔을 때 죽포 주민들이 아산에 성을 쌓고 왜군과 싸웠다고 해 '두문포'라 불렀다.

그러다 1948년 죽포와 나뉘면서 죽포 마을을 지키는 곳이란 뜻에서 두문포라 부르게 됐다. 비룡에 둘러싸여 있듯 마을을 포근하게 둘러싼 산자락이 이유 모를 안정감을 준다. 산줄기를 따라 왜군을 막기 위해 당시 쌓았던 돌성의 흔적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마을은 '수려함'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더 순박해보인다. 마을 포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웅장하게 들어선 '돌섬'이다. 마을 주민들은 이 돌섬을 '불무섬'이라고 부른다. 풀무의 주둥이를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란다.

재미있게도 이 불무섬은 물이 빠지는 간조 때는 절어서 들어갈 수 있게 그 길을 허락해준다. 해식작용으로 인해 섬 남쪽에는 커다란 용굴도 뚫려있다. 만조 때 물이 들어치면 마치 그 모양새가 거북이가 몸을 숨긴 등껍질과도 닮았다.

포구에서 바다를 등지고 바라보는 마을의 모습도 운치가 있다. 노랑과 파랑과, 빛에 바래 물이 빠진 알록달록한 담벼락과 지붕, 그 뒤로 푸르게 펼쳐진 산봉우리가 조화롭다.

여유와 사색을 찾아 떠난 여행에서 '낙시'와 '갯길'을 빼놓을 수 없는 여행이다.

두문포 마을은 잘 알려지지 않지만 '손맛'을 보기 쉬운 낚시 포인트로 입소문이 나있다. 봄이면 제철을 맞은 '불락'을 방파제와 갯바위에서도 쉽게 낚을 수 있다. 그만큼 마을 포구와 해안을 따라 서식

하는 불락이 많다는 뜻이다. 여기에 불무섬으로 건너가면 씨알이 굵은 감성돔도 제법 올라온다. 불무섬 주변은 수심이 깊고 낚시꾼들의 출입도 적어 손맛을 보기 최적의 장소라고 한다.

봄철이면 어김없이 갑오징어와 송어때가 찾아오고 여름으로 넘어갈 시기엔 서대도 건질 수 있다. 겨울엔 두문포 집집마다 손질해 말리고 있는 물메기 역시 유명하다. 마을 앞에 펼쳐지는 갯벌은 아담하고 물살도 얇아 때만 잘 맞으면 갯벌에 나가 조개도 캐고, 게도 잡을 수 있다.

마을 뒤편 교회 뒤로는 산자락과 연결된 입구가 있다. 여수 '갯가길 2코스'에 접어드는 입구다. 갯가길은 바다사람들이 굴이나 미역, 파래 등 해산물을 따라, 즉 '갯갯'하러 다니던 길을 뜻한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던 바닷가 마을 사람들이 걸던 그야말로 생의 길이다.

갯가길은 꾸밈이 없다. 생업을 위해 오가던 길이니 거칠면서도 투박함이 녹아있다. 물론,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치는 갖춰져 있다.

원래 갯가길 2코스는 무술목을 출발해 월암-두문계-계동-두문포를 거쳐 방죽포 해수욕장에서 끝나는 총 5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전체 길이는 17km로, 5시간 정도 소요된다.

두문포에서 방죽포 해수욕장까지는 걸어서 약 1시간 남짓이다. 힘들지 않고 산책 삼아 걷기 좋다. 갯가를 따라, 비렁(벼

랑) 위를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레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소나무와 어우러진 해수욕장과 수평선 위로 떨어지는 태양, 맑은 날이면 저 멀리 경남 남해의 바다도 눈에 들어온다.

아무리 좋은 여행도 먹는 것, 맛있는 게 없다면 허사다. 두문포 마을에는 식당이 딱 하나있다. 하나뿐인 식당이지만 알차다. '온누리네 횡집'은 주인장이 직접 배를 몰고나가 이각망 그물로 잡은 활어가 주메뉴다. 당연히 모두 자연산이다. 메뉴도 '사시미(회)', '매운탕', '해삼', '멍게'로 단순하다. 그날 그물에 걸린 생선에 따라 횡감도 달라진다.

낙지호롱부터 소라숙회, 생선구이, 여기에 지역 특산물로 명성이 자자한 돌산갓으로 직접 감치를 담가 맛깔스럽게 한상 차려놓는다. 큰칼 이름(온누리)을 걸고 장사하는 만큼 말반찬 하나에도 정성이 들어가 있다.

쉬기 위해,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 떠난 여행지에서 오히려 피로감을 느낀 적이 있다. 사람들에게 치이고, 복직이는 여행지와 달리 여수 두문포 마을은 온전히 편하게 쉬다 올 수 있는 그런 여행지다. 던져놓은 낙시대와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낙조, 바닷바람 불어오는 갯가길을 걷다 보면 일상과 마음의 소란스러움이 자연스레 떨어진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찾아오시는 길

- ▶ 승용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서해경부고속도로 → 천안논산고속도로 → 순천완주고속도로 → 엑스포대로 → 거북선대교 → 돌산읍 → 두문포마을
-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 → 여수종합버스터미널(4시간15분) → 시외버스터미널정류장(도보 3분) → 111버스 승차(54분 이동) → 두문포마을 정류장 하차
- ▶ 열차 KTX용산역 → 여수엑스포역(2시간 40분) → 여수엑스포역-L정류장까지 도보이동(2분) → 111버스 승차(49분 이동) → 두문포마을 정류장 하차

“제철 바다고기와 낙조가 마을 자랑거리 누구든지와 편안하게 쉬었다 가세요”

제용국 어촌계장

두문포 마을의 제용국(65) 어촌계장은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시골이라는 게 다 그렇다. 마을사람들 모두 큰 욕심 없이 바닷일을 하고 특산물인 돌산갓도 키우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민들 모두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속에 '여유로움'이 묻어 있다.

제용국 어촌계장은 “두문포 마을 역시 우리 주민들처럼 여유롭고 한적한 마을”이라며 “특별한 것, 딱히 볼 것이 없지만 그저 편히 쉬다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말했다. 그가 꼽은 마을의 최고 자랑 역시 '여유'와 '편함'이다. 자신의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편하게 쉬었다가 돌아가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했다.

“타지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웃들도 있지만 세상살이가 점점 각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뻥뻥하고 바쁜 삶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사람들이 정말 꼭 쉬었다 갔으면 합니다.”

그는 또 마을의 자랑거리로 풍부한 바다고기를 꼽았다. 갯벌도 있고 불무섬 근처는 물도 깊어 사시사철 제철 생선이 끊이지 않고 찾아온다고 했다. 강태공들 사이에서 알려지지 않아도 유유자적 낚시대를 드리우기 최적의 장소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해질녘 떨어지는 낙조를 바라보는 것도 두문포 마을의 ‘배놓을 수 없는 관광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마을의 단 하나뿐인 음식점 역시 본인이 품질과



맛 모두 담보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우리 마을에는 4개의 펜션이 있는데 그 위치들 모두가 바다 위로 떨어지는 낙조를 바라보기 최적의 장소에 있어요. 특이하게 비록 식당은 하나 뿐이지만 특산물인 돌산갓김치도 아주 일품이죠. 더구나 주인이 직접 바다에 나가 건진 신선한 자연산 활어회 그 맛은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제용국 어촌계장은 “두문포 마을은 여수 최고 관광지라 꼽히는 향일암과도 가깝고 몽돌해변, 해양과학관도 인접해 있어 가족과 함께 찾아도 좋다”며 “일상의 피로를 잊고 진정한 휴식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끔 주민들 모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마을 포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불무섬. 풀무의 주둥이를 닮아 이름이 붙여진 이 섬은 물이 빠지는 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섬 남쪽에는 용굴이 뚫려있으며, 주변 수심이 깊고 낚시꾼들의 출입도 적어 '손맛'을 보기 좋은 곳이다(왼쪽). 마을 주민들이 바다에 나갈 채비를 하며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다.



청정바다·갯벌·숲 어우러져 숨겨진 보석같은 ‘힐링 어촌’

참꼬막·짱뚱어 등 어패류 풍부
바지락은 미처 다 캐지도 못해
갯벌체험관광 활성화 부풀어
2년 뒤 화양대교 완공 뎀
여수관광과 연계 시너지 효과

여수시 화양면 장수마을은 바다와 갯벌 그리고 숲이 어우러진 어촌이다. 여수시내에서 고흥 방면으로 승용차로 30분 가량 달리면 닿는다. 마을은 바다와 이웃한 해안도로 안쪽에 용기종기 형성됐다. 해안도로와 이웃한 축구장 크기의 넓고 푸른 숲이 여는 어촌과 달리 이채롭게 다가온다. 바다와 불과 5m 가량 떨어진 평평한 숲에는 한 아름, 아니 서너 아름은 족히 될 나무들이 서로 적당한 간격을 두고 힘차게 솟아있다. 바로 옆 갯벌에서 바지락 캐고 사위를 한 다음 이 숲에서 낮잠 한 슴 꼭 자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난다. 어촌마을이지만 마을 사람들이 참지공원이라 불리는 이 숲을 자랑거리로 꼽는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다. 숲과 바다 사이 해안도로를 걷다가 보게 되는 주택 돌담도 볼거리 가운데 하나다.

장수마을은 139가구에서 주민 263명이 산다. 19세 미만이 20명, 19-65세 청년(?)이 117명, 65세 이상 어르신이 126명이다. 장수마을이라는 이름부터가 예상할 수 없듯 90세 이상의 장수노인이 10여명 산다고 한다.

어촌계원은 총 126명. 여기로는 86가구다. 해안도로에 붙어있는 푸르고 넓은 숲과 더불어 마을 자랑거리는 갯벌이다. 참꼬막, 바지락, 굴 등 갖가지 패류는 물론 낙지, 짱뚱어 등 바닷고기도 종류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나온다. 게 마을주민들 설명이다. 바지락이 특히 일품으로 꼽히지만 어촌계원들이 이제 제법 나이가 들어 쏟아져 나오는 바지락을 미처 다 캐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김인준(53) 장수마을 자매어촌계장은 “한 여름만 제외하고 1년 사시사철 바지락이 쏟아져 나오는 게 바로 저 갯벌”이라며 “이제는 어촌계원들 대부분이 노인들이어서 때되면 캐기만 하면 되는 바지락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로부터 저기 저 멧기로쭈 뒤로 떨어진 섬들 앞까지가 모두 갯벌”이라며 해안도로 코앞에 펼쳐진 바다를 가리킨다. 때가 마침 만조여서 바닷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바다는 간조 때면 끝도 보이지 않는 갯벌을 드러낸다. 어촌계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낚시배도 2-3척 있으나 흥보 저조로 아직은 신통치 않다.

마을 앞에 펼쳐진 갯벌에서 종종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갯벌체험이라는 것을 어촌계 주관으로 하지만 아직 경쟁력은 없다. 샤워실과 탈의실,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조차 여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갯벌체험 홍보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게 어촌계장 설명이다. 마을 자랑거리인 평평하고 울창한 숲 역시 일부 구간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변하게 없을 의자조차 구비돼 있지 않아 새단장이 필요하다. 무궁무진한 관광자원에도 변변한 식당과 숙박업소가 없다는 점도, 관광산업(바다갯벌 체험활동)을 일으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어하는 어촌계장의 고민거리다.

장수마을은 늙어가는 여는 어촌마을과 다름없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 커다란 변



고흥군 영남면 조밭도와 여수시 화양면 장수마을을 잇는 화양대교 건설이 한창이다. 2년 뒤 개통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가 예상된다. 바로 옆 고흥 영남면 조밭도와 화양면을 잇는 화양대교가 2년여 지나 완공되기 때문이다. 다리가 완공되면 그동안 수십km를 돌아서 여수와 고흥을 오갔던 차량들은 마을 바로 뒤 도로를 이용하게 된다. 마을을 지나는 인구가 가파르게 불어나는 것이다. 어촌계장을 맡은 지 3년차인 김씨 역시 화양대교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두 눈이 반짝거렸다.

마을은 자체로 유명 관광지는 없다. 하지만 차로 30분 안팎으로 이리만 대면 알만한 명소가 자리잡고 있다. 여수 밤바다를 오가는 여수의 새 명물 해상케이블카, 일출 명소 향일암, 추억을 자극하는 오동도까지. 여수 돌산과 바다 건너 자산공원을 잇는 1.5km 구간의 국내 첫 해상케이블카는 바다가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 10대(5인승)와 일반 캐빈 40대(8인승) 등 총 50대가 운행되고 있다. 비바람이 불지 않은 날은 사람들이 늘상 줄지어 있을 정도다.

국보 제 304호 여수 진남관도 볼거리다. 진남관은 전쟁 직후인 선조 32년(1599) 삼도통제사로 부임한 이시언이 새로 지은 객사(客舍)로, 숙종 42년(1716) 화재로 소실되어 숙종 44년(1718) 재건된 뒤 여러 차례 중수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진남관은 당시 임금이 사용하던 궁을 제외하고 지방에 세워진 목조건축 중에서는 가장 큰 건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바다를 향해 절벽에 세워진 향일암은 일출은 물론 일몰도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섬 전체에 동백나무가 빼곡해 동백섬으로 유명한 여수의 상징과도 같은 오동도 역시 장수마을에서 30분 차로 달리면 닿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하늘에서 내려다본 여수시 화양면 장수마을 풍경. 바닷물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갯벌과 해안도로와 맞닿아 쪽 펼쳐진 평평한 숲은 마을의 자랑거리다.

“청정자원 활용·편의시설 정비...남도 최고의 어촌체험마을 만들 것”

김인준 어촌계장

여수시 화양면 장수마을 자매어촌계장 김인준(53)씨는 “우리마을이 보유한 자원으로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싶다. 남도에서 첫손에 꼽는 어촌체험마을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 마을은 깨끗한 바다, 온갖 해양생명이 살아숨쉬는 갯벌, 그리고 남도 여촌 어느 곳도 품지 못한 울창한 숲을 해안도로 옆에 두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체험프로그램을 만들면 우리 마을도 승산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수마을은 여수시내에서 승용차로 30분가량 고흥방면으로 달리면 나오는 마을이다. 138가구, 263명의 주민이 모여사는 마을은 65세 이상 노인이 절반 쯤 된다. 어업에만 집중하기에는 마을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된 것이다. 올해로 어촌계장 3년차인 김씨는 점차 활기를 잃어가는 고향마을을



체험관광으로 되살리려는 열망이 강렬했다. 그러면서도 “어촌계에서 그동안 어업에만 집중해온터라 식당이며 잠잘 곳이 변

치 않다. 갯벌체험을 하고나서 바로 옆 숲 공원에서 쉬면 딱 좋은데 몸을 씻을 곳도 마땅히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실 장수마을은 바지락, 키조개, 망둥이, 낙지 등 해산물들이 절로 솟는 천혜의 갯벌을 품고 있다. 어촌계원들이 마을 앞 갯벌로 나가 캐기만 하면 소득으로 이어질 정도지만 상당수 주민들이 연로한 탓에 어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쇠락해가고 있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그러면서 “제가 어촌계를 맡은 지 올해로 3년째다. 각종 방송을 통해 마을을 소개한 적이 여러번 있었는데 그때만 외지인들이 반짝할 뿐 꾸준하지 못했다”면서 “관광객들이 먹고 놀 것들은 마을에 충분했는데 샤워실이며 화장실, 식당, 펜션 등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관광객 발길을 지속적으로 끌지 못했다”고 진단하며 변화를 다짐했다.

때마침 마을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커다란 변화가 불어온다. 2년여 뒤면 완공

되는 화양대교가 바로 그것. 고흥군 영남면 조밭도와 화양면을 잇는 다리는 장수마을을 뒤를 지나간다. 다리가 완공되면 그동안 수십km를 돌아서 여수와 고흥을 오갔던 차량들은 마을 바로 뒤 도로를 이용하게 된다. 마을을 지나는 인구가 가파르게 불어나면서 관광객 등 외지인 왕래가 큰폭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어촌계장 김씨는 물론 마을 주민 상당수가 화양대교라는 변화 속에서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를 바라고 있다. 김씨는 “화양대교 건설을 계기로 어촌계원들 힘을 모아 관광객들이 찾아와 어촌체험하며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고 싶다. 갯벌체험, 낚시 등 어촌관광, 바지락 등 해산물을 비롯한 어업활동 양축을 바탕으로 마을 발전을 이루고 싶다”며 “해양수산부와 자치단체가 우리 마을을 응원하고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찾아오시는 길

- ▶ 승용차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서해경부고속도로 → 천안논산고속도로 → 순천완주고속도로 → 엑스포대로 → 화양면 → 세포삼거리 → 자매삼거리 → 장수마을
 - ▶ 고속버스
 -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 → 여천시외버스정류장(4시간15분) → 여천시외버스터미널건너정류장까지 도보이동(2분) → 1000, 32, 34번 버스 승차(9분 이동) → 국민은행 여천지점정류

- 장 차차 → 진남시장정류장 도보이동(2분) → 27번 버스 승차(39분 이동) → 자매마을정류장 하차
- ▶ 열차
 - KTX용산역 → 여천역(2시간37분) → 반월마을정류장 도보이동(6분) → 61, 31, 33, 35, 36, 37, 62, 330, 610번 버스 승차(5분 이동) → 임포(향일암)정류장 하차 국민은행 여천지점정류장 하차 → 진남시장정류장 도보이동(2분) → 27번 버스 승차(39분 이동) → 자매마을정류장 하차